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 메시지

## 어느 한 아이



###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요 6:9)

벧세다 광야에 모인 수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온 병자들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아닌 건강한 남자 장정만도 5,000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배고픈 장정, 무기력한 장정일 뿐 모인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기 이름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고 누 집 아이라는 것도 소개되지 않은 한 아이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5천명 속에 끼지 못한 ‘한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 광야에서 기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5천명의 장정이 아니라 그들 속에 낄 수조차 없는 바로 이 아이였다.

인류 역사상 경이적인 일들이 종종 수에 칠 것도 못되는 소외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빠근하게 만들어 준다.

시간은 석양, 장소는 광야, 주인공은 한 아이, 군중은 장정만도 5천명, 재료는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결과는 경이적이다. 물론 기적은 이 아이가 베푼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하여금 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든 장본인은 이런 큰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한 아이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이 좋은 나이에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이렇다 할 변혁이나 일으키지 못하니 말이다. 선택받은 소수 속에서 특혜인생을 살면서도 도리어 수에도 들지 못하는 등외품 인생에 의해 구제되어야 하는 자신은 배고픈 장정 꼴이 아닌가?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기도한다.

“주여, 무력한 5천명 장정보다 자기를 희생한 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بل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말씀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로 양육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 올바른 주의 자녀로 양육하여 바르게 서도록 하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육1국에서는 다양한 잔치를 준비한다. 초등부는 한티공원에서 친구초청

총동원 주일로, 유년부는 찬양예배 시간에 유년부 엔젤스와 찬양대가 출연하는 뮤지컬을 공연하고 유치부는 반별 찬양대회를 열어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즐거운 시간으로 갖는다.

또한 교회는 오늘 점심을 어린이들이 즐기는 짜장면으로 준비하여 어린이 주일을 축하한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귀한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한다.

## 제6회 교구찬양대회 임박

5월12일(금) 오후 6시 30분까지 입장토록

제6회 교구찬양대회가 임박하였다. 교구위원회는 이번 찬양대를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로 준비하며 우승 트로피와 시상품을 준비하는 한편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필히 6시 30분까지 본당에 입장하여 교구별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대학부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교구위원장의 심사위원 소개와 심사기준 발표에 이어 오후 7시 이종윤 목사의 개회기도로 찬양대회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구찬양대회에는 특별교구인 에바다

부와 호산나 장애인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찬양을 드리는 순서도 갖는다.

시상은 사랑, 믿음, 소망, 희락, 화평, 충성상으로 구분되며 사랑을 받게 되는 교구는 14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특송을 한다.

이번 교구찬양대회는 지정곡 488장 1절을 부르고 자유곡을 부르게 된다. 심사기준은 참여도 50%, 준비성 20%, 음악성 20%, 호응도 10%로 배분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제38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

5월9일(화) 우리 교회당에서

서울강남노회 정기회가 9일(화) 오전 9시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노회에 우리교회 당회는 새번역 주기도 사도신경을 총회가 채택해 달라는 현의를 하게 된다.

이미 전국 여러 노회에서 같은 제목의 현의안이

결의 되었다.

이종윤 목사와 부목사 전원과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정병무, 이영기, 왕경래, 하영수, 이복규, 신용식, 박두영 장로 등이 우리교회 총대로 참여한다.

## 집사·권사 선거 전산 투표한다

우리교회는 5월28일(주일)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집사, 권사 각각 70명씩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4일(주일) 제직회에서 후보추천을 투

표로 정한다. 제직회에 제출할 자격기준에 근접한 후보를 9일(화) 당회가 검토 선별한다. 이와 같은 3단계 과정 전체를 전산 투표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 탐구

한국 기독교 학술원과 한기총 신학위 공동으로

급속도로 성장해가는 한국 교회를 더 건전하고 연속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신학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세계 신학계에 공헌하고자 한기총 신학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와 한국기독교 학술원(원장: 이종성 목사)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독교 학회가 후원하는 신학대토론회가 열린다.

5월15일(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수영(새문안교회), 박종천(감신대), 목창균(서울신대) 목사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신 정통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김경재(한신대), 김명용(장신대) 목사가 각각 발제하고 질의와 응답을 하게 된다.

특히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신학세미나 참석자들과 신학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 오늘 대치역에서 어버이날 꽃 달아 드려

여전도회, 오후 1시 대치역에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교회 뵘뵘 루디아, 도르가전도회는 연합으로 오후 1시 대치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을 감사하는 꽃을 달아드립니다.

## 대학·청년부 어버이주일 호도잔치

5월14일 주일 오후 3시30분 만나홀

우리교회 대학부와 청년부는 다음 주일(5월 14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오후 3시 30분 801호(만나홀)에서 살롱권사회, 사라전도회, 아브라함선교회(65세 이상) 회원들을 모시고 어버이 주일 호도잔치를 갖는다.

## 찬양대원 세미나 열려

5월19일(금) 오후 7시 101호에서

찬양대원 세미나가 5월19일(금) 오후 7시 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찬양대원 세미나의 강사로는 이영조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서게 된다. 본 교회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은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한다.

##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의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 금주의 성구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 1:17-18)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though dead. Then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 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NIV Revelation 1:17-18)



어린이주일

#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꿈나무들이여

## 아빠가 된 기쁨

정승균 성도(11교구)

결혼을 해서 1년 만에 첫 아기를 갖고 드디어 나도 아버지가 되는구나 했었는데 임신 6주 만에 유산이 되고 한동안 참 힘들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낙담하여 무지 실망하다가 유산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 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일찍 알려 주기위한 방법이였



다고 생각 한다. 시간이 지나고 오랜 기도 끝에 1년하고 2개월 만에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얻은 아이로 우리는 태명을 사랑이라 지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이에게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라고 이야기 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그리고 10개월 후 우리 아이가 태어났

다.

은지... 아내가 만 하루 동안 진통을 하다가 결국 수술로 태어났지만, 처음 수술실에서 은지의 탯줄을 자르기 위해 들어 갔을 때 그 기분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내 눈으로 처음 확인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된 기쁨과 힘들게 버티다 결국 마취에 취해 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나를 슬프게 하였다.

은지야 이렇게 네가 태어났단다. 그리고 5월2일 첫 돌을 보내고 이제는 이렇게 예쁜 딸로 자라고 있구나!

네가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이다. 네게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건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처음에 너를 갖았을 때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백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사랑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길 기도 한다.

## 프랑스에 사는 손녀에게

박정실 권사(1교구)

나림(세실리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8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가까이 볼 수 없어 자라는 모습은 메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집안에 있는 리모컨이나 비슷한 것을 죄다 들고 다니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하루 종일 떠돌고 다니고 자기가 전화 받겠다고 야단이고 한국 CD의 율동과 노래를 보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루 종일 또 해달라고 떼쓰고... 지난 11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려 갔는데 엄마가 문 뒤에서 살펴보니 30분을 계속 울고 있었다면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울었는데 1년 미만 반에서 그 뒷반으로 옮겨주니 덜 울더라고... 지금은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겠다고 야단이었던... 사랑하는 우리 나림아! 이 할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딸 나림이가 자라면서 이 세상의 생명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뜻 대접할 수 있고 인간의 타락으로 서로 시기, 질투하며 전쟁과 기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의 심한 고통 중에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쁘게 자라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우리 나림이, 문화의 벽, 언어의 벽, 인종의 벽, 벽이 수없이 많다. 험한 세상에 사는 우리나림이가 우리교회 유년부 예배에 데리고 다니며 그림 성경책도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우리교회는 어린이주간이어서 많은 잔치가 곳곳에 벌어져 우리나림이가 더 보고 싶구나. 밝고 영글게 자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딸이 됐으면 고맙겠고 한국말을 잘 배워 할미와 전화하면 더욱더 좋겠다. 잘있어 안녕.....

##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홍지나 집사(3교구)

서른이 되기 겨우 한달 남짓 되었을 즈음 남편을 만났고 처음 만난 순간 그 듩직함과 푸근함에 마음이 설레고 온통 마음을 뺏겼습니다.

꼭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패하면 어찌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약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때 정말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 예상밖에 빨리 프로포즈를 하고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에 너무나 '멋지게' 응답하셨음에 뜨거운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의 20대 후반에 고난을

허락하사 완악한 저의 마음을 가장 가난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커다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느낍니다.

결혼 후 하나님은 저에게 곧 딸과 아들 그리고 올해 또 태중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 결혼한 동생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올해 말이 되면 정말 많은 손주들이 부모님의 집을 어지르고 속을 썩이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철없고 이기적이고 한없이 어리석은 짓을 할 것입니다. 저의 할 일은 그러한 그들을 제 기준에 따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미래와 신앙을 위해 저의 부모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 아이인 제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말이지요. 할렐루야!

# 영어교실 통해 통일역군 배출되길

## 학감 오영숙 권사외 든든한 교수진, 5월1일 개교

탈북자를 위한 영어교실이 지난 5월1일 저녁 7시 우리교회 602호실에서 역사적으로 개교되었다.

이날 첫 입학자 12명과 탈북자 가족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부 교사들과 당회원들이 참여한 개학식에서 이종운 목사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대하 1:7-13)라는 제하의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영어가 세계공용어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통일조국의 역군이 되려면 영어가 필수이고 복음증거를 위해서도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이어서 학감 오영숙 박사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오 학감은 탈북자 부모를 초청하여 그들과의 대담을 통해 영어교실의 필요를 절감한 이종운 목사님이 제안으로 오랫동안 기도와 준비단계를 거쳐 당회

의 허락을 받아 오늘 개교하게 되었다는 경과보고를 한 후 학사관리를 확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학장 이종운 목사는 오영숙 권사(세종대 영문과 교수)를 학감으로 이완형 장로(한양여대 관광과 교수)와 이신명 선생(육사 영어교수)을 각각 교수진으로 임명 발표하고 영어 교육 전공자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들 중 탈북자를 도울 사명감을 가진 믿음 있는 자원봉사 교수요원을 찾는다고 했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은 1년 3학기제로 진행되며 우리교회 디아스포라부 회원뿐 아니라 모든 탈북자들에게 열려있다.

이날 학생대표로 김철훈 성도(디아스포라부)는 서울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탈북자를 사랑하고 돕는 교회임을 깨닫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여 통일의 역군이 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다고 했다.

유태서(편집부)



# 농아인 복음화 위하여

김미향 집사(11교구)

2006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농아선교가 시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4월 30일 대전신학교에서 열린 전국 농아인선교대회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복음의 사각지에 놓였던 농아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앞으로 우리 에바다부에서 어떻게 농아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앞으로 농아인 선교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부흥이 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우리 서울교회 에바다부도 그 중심에 서서 함께 농아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 신간 안내

이종운 목사의 시편 1권



신약신학자 이종운 목사가 이번에는 구약의 시편을 출간 하였다.

이번 출판된 시편은 한국교회 갠신연구원에서 만 5년, 10학기 동안 목회자들에게 강의한 강의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으로 독자들은 강해설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총 3권으로 출판될 시편 중 첫 권으로 나온 이 책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강해하고 있다. 찬양과 기도와 고백으로 채워진 시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필수적인 말씀으로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고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필그림 출판사에서 4X6배판 양장 406페이지로 출판한 시편 1권은 권당 18,000원으로 판매된다.

이종운 목사의 저서 판매수익금 전액은 교회에 헌금된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9일(화) 서울강남노회 제38회 정기회에서 성찬예식을 집례한다. 11일(목) 장로교 신학회 월례 모임과 아시아 로잔대회(ALCOE VI)한국 대표단을 각각 소집한다.

■ <이전>: 14교구 정선화 성도 조건우 성도 삼성건강약국 (강남보건소 옆) T. 517-3520

<이사>: 한인진 집사 박정순 집사 가정(3교구) 도곡렉슬@ T. 529-9628

원용규 집사, 박이선 집사(11교구)도곡 렉슬@ T. 424-0840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 선교회(5월7일) 베드로선교회 (5월14일)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2.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개설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5.31 지자체 선거를 위하여

###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